

스카프의 조형미를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정 희 경* · 김 정 혜

동덕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의상디자인학과*
동덕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 의상디자인학과 부교수

A Study on Apparel Designs using Formative Aesthetics of Scarf

Hee-Kyung Jung* · Jung-Hae Kim

*Dept. of Apparel Design, Dongduk Women's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Dongduk Women's University, School of Design
(2002. 4. 30 투고)

ABSTRACT

With such basic conceptions in mind, this study was aimed at reviewing the unique formative aesthetics of scarves for creation of modern apparel design. To this end, the drapeability of the rhythmically wrinkled fabric of scarf as well as its tying and enclosing representation were introduced into the apparel details and silhouette to create an apparel design flattering the moderns unique sense of aesthetics and emotion. In the same vein, threads were superimposed on the planar fabric to express a sense of volume and thereby, pursue a unique decorative effect of rich texture.

Specifically,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highlight the practical use of scarf warming and its decorative formative aesthetics and thereby, apply it to apparel designs and develop an art fabric using the machine embroidery technique, and ultimately, suggest the possibility of unique but highly value-added apparel designs.

Key words : scarf(스카프), drapeability(드레이프성), apparel(의상), formative aesthetics(조형미)
art fabric(아트패브릭), coordination(코디네이션)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의복의 형태가 단순화되면서 액세서리에 의한 분위기를 연출 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액세서리 필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다. 스카프란 어깨에 걸치기도 하고 목에 두르기도 하고 머리

에 감싸기도 해서 여러 가지로 쓰는 형태의 천이다. 스카프는 어느 시대에도 유행과 관계없이 애용되어 여성의 사치스런 필수품으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소품이다.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닌 각각 개성을 중시하면서 자유롭게 착용하고, 자신만의 패션을 만들어내고 연출하는 불가사의한 천이다. 매기도하고 감싸기도 하는 등, 매는 법, 사용방법은 물론 소재, 크기 등 다종다양한 스카프는 다루기에 따라 패션에 풍부한 변형과 개성을 만들 수 있다.¹⁾

특히 의복과 같은 소재로 다루어진 스카프는 방한, 방풍 및 장식의 보조적인 역할에서 점차적으로 패션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리드해 가는 비중 있는 위치로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스카프 디자인도 감각적이고 독창적인 디자인 개발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머리, 목, 어깨, 가슴, 허리 등 인체 부위에 따라 다양한 스카프의 연출법 등이 나타나게 되었다. 현대 패션에서는 이러한 스카프의 연출법에 의한 조형미와 독특한 스타일이 의상의 디테일 및 실루엣에 도입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대적인 복식디자인을 창출함에 있어서 스카프의 다양한 연출방법에 따른 조형미를 모티브로 선택하였다. 스카프에 있어서 리드미컬하게 주름지는 직물의 드레이프성과 매고 감싸는 연출법에 의한 다양한 직물형태의 조형성을 복식의 디테일 및 실루엣에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미의식을 지닌 현대인의 감성에 적합한 복식디자인을 창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작품의 소재는 평면적인 직물 위에 실에 의한 입체적 질감을 부가하여 표현함으로써 풍부한 질감의 장식효과와 독특함을 추구하였으며 바탕직물과 기계자수기법을 사용한 아트패브릭에 조화로운 질감의 대비효과로 복식의 디자인의 형태미를 강조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스카프에 있어서 방한을 목적으로 한 실용성과 연출법에 의한 장식적인 조형미를 부각시켜 의상디자인에 응용하고 아트패브릭을 개발함으로써 독특한 개성을 창출할 수 있는 독창적인 디자인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고부가가치의 복식디자인을 개발하는데 있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이론적 배경과 작품제작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론적 배경으로는 문헌적 고찰을 통하여 스카프의 개념과 역사를 살펴보고 스카프의 종류와 연출법의 유형을 알아보았으며 스카프의 조형미를 도입한 현대 패션 디자인을 패션관련전문서적 및 잡지와 사진자료 등의 수집, 분석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이를 토대로 작품은 스카프의 연출에 의한 조형미를 다양하게 응용하여 복식의 디테일 및 실루엣에 이용하여 디자인하였으며, 풍부한 질감표현을 위해 기계자수기법을 사용하였다.

제작한 실물 작품은 롱코트 1점, 원피스 3점으로 구성되었으며, 스카프와 복식이 조화될 수 있도록 현대적인 감각과 조형미를 바탕으로 간결한 실루엣으로 디자인하였다. 바탕직물로는 울크레이프, 캐시미어, 수직 실크, 실크 쉬폰 등을 사용하였고 기계자수기법에 의한 아트패브릭 소재를 위한 실은 날개사, 솔잎사, 양모사를 응용하였다.

색채에 있어서는 현대적인 단순미를 강조하고자 기본색상인 블랙과 화이트, 베이지를 중심으로 다크 바이올렛, 카키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소재에 있어서도 풍부한 질감의 표현을 위하여 아트패브릭을 개발하고 입체재단의 자연스러운 드레이핑을 이용하여 스카프의 조형성을 복식의 디테일 및 실루엣의 형태에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미의식을 지닌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구성하여 보다 새롭고 강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스카프와 패션

1) 스카프의 개념

현재 우리가 “스카프”라고 부르는 것은 오랜 역사를 통해 몸을 치장하는 장식물로 알려져 왔다.

스카프의 사전적 정의는 첫째, 장식이나 방한의 목적으로 목, 어깨 또는 머리에 두르는 울, 레이스, 실크 등의 재료로 만든 길고 넓은 띠. 둘째, 양끝이 늘어진 크라바트 넥타이. 셋째, 책상과 테이블 등을 위한 긴 덮개 또는 장식 천이라고 정의되어 있다.²⁾

또한 Fairchild's 복식사전에 의하면 스카프는 첫째, 목에 감거나 어깨에 걸치기도 하고 방한과 장식을 위해 머리에 쓰는 실용과 장식을 겸비한 장신구의 일종이다. 둘째, 어깨부터 반대편 힙까지 대각선으로 몸에 걸쳐 허리에 감는 천이나 어깨에 두르는 장식적인 Sash이다. 셋째, 1830년에 남자들이 스카프를 타이핀으로 고정시켰고, 셔츠 앞을 덮어 걸쳤던 매우 커다란 크라바트이다. 넷째, 19C 후 넥타이는 끝에 넓게 매달린 것, 검정색으로 된 좁은 넥타이라고 한다.³⁾

스카프(Scarf)의 어원은 연대가 불분명하고 시대와 더불어 의미도 차츰 변화되어 왔다. OED는 이 단어가 16세기경부터 사용되어온 것 같다고 진술하며, 노르만 프랑스 구어인 "escarpe"(장식띠 또는 벨벳)와 프랑스 구어인 "escharpe"나 "escreppe"(순례자의 짐보따리 또는 지갑)에서 파생되었다고 진술한다. 순례자의 지갑은 오늘날의 여행객들이 사용하는 여권 파우치와 같이 목 주위에 천 끈을 매달은 것이다.⁴⁾

Lois Martin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스카프는 재단되지 않은 중간 크기의 천 조각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스카프는 바느질을 하지 않고 늘어뜨리거나 접거나 둘러치거나 매듭을 만들 때 모양이 형성되며 어떻게 착용하고 또 몸의 어떤 부분을 둘러싸느냐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즉 머리, 목, 허리, 가슴 또는 어깨 등에 두를 때에 모양이 달라진다. 스카프는 실용적이고 스타일적인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스카프의 역할은 과거에 인류의 생활이 시작되면서 생활수단 및 사회구조에 따른 복식의 발달양식에 따라 변천되어 시대 흐름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는 장신구의 하나로 발전해 오고 있다.

오늘날 스카프는 패션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과 더불어 개성적 표현과 장식적 효과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어 급변하는 패션의 변화에 대응하여 스카프에 대한 주목 또한 강해지고 있다. 따라서 스카프가 의복의 단순한 액세서리에서 탈피하여 독립된 패션아이템으로 부각되면서 패션 이미지의 연출을 위한 코디네이트(coordinate)로서의 주요한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2) 스카프의 역사

스카프는 기후나 습관에 따라 큰 포로 쓰기도 하고 작은 포로 사용하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 형태와 특성이 다르다. 스카프의 착용은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생각된다.

청동기 시대의 남아있는 유물에 의하면 스카프는 실을 꼬아 두껍고 검은 털실로 만들어진 타래를 나선형으로 엮어 술 장식과 함께 끝처리 하였다.⁵⁾

Assyrian시기(기원전 1300년경)에는 상류층 사람들이 걸쳐 입었는데 지위와 권세에 따라 스카프의 폭이나 술 장식이 달리 나타나고 있다.⁶⁾ 남성들의 경우 스카프는 군대 계급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스카프는 대개 벨트에 연결되었으며 때때로 가슴을 가로질렀다고 한다. 스카프의 크기, 장식 정도, 술의 길이, 둘러치는 부분 등은 엄격하게 규제되었으며 착용자의 계급을 나타내고 있다.⁷⁾

고대의 복식중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Lagash Figurine's 머리형은 Chignon으로 늘어뜨려 이 속에 스카프로 머리를 씌우기도 하였다.

고대 그리스시대에 걸쳐진 스카프는 "mitra"라 불렸으며 직사각형의 형태를 어깨에 두르고 피블라로 각 어깨를 고정시켰으며 허리 부분에 벨트로 한번 또는 두 번 매었다.

Curled Turban은 입체감 있는 소재를 이용하여 머리에 스카프를 감싸는 터번 형태의 한 종류로 유용하게 쓰였다.

남성 복식에 나타난 스카프는 폭이 좁은 소매가 있는 tunic위에 오른쪽 어깨를 덮어 감싸는 형태이었고 여성 복식에서는 길고 짧은 소매가 달린 tunic과 긴 스카프를 대각선으로 교차시켜 어깨에 덮고 끝 부분은 왼쪽 팔 위에 늘어뜨렸다고 한다.⁸⁾

Irano - Indion 지역복식 중 중간계층 사람들은

두 장의 직사각형 모양의 스카프를 만들고 부분적으로 자르고 꿰매어 바느질하여 폭 넓게 어깨를 덮어 사용하였다.

로마복식에는 주름진 스카프를 어깨에서 크고 넓은 형태로 팔 위에 걸쳤고 toga 위에 입혀졌다. 황제나 상류계급사람들은 스카프를 둘러 허리에 매는 것이 자신들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였다.

중세복식으로 5~10C경 사라센 프랑크 비잔틴 의복에서 스카프를 사용함을 알 수 있다. 6C경 사라센 족들이 동방에서 서 유럽으로 침입하여 사라센 의복이 비롯되어 여자는 튜닉 위에 대형의 스카프로 머리에서 몸을 완전히 뒤덮었다고 한다.⁹⁾

11~12C경에는 로마네스크 복식에 나타난 스카프는 머리 위에 견이나 린넨으로 사가 또는 원형의 얇은 직물로 덮어쓰고 어깨위로 늘어뜨렸다.¹⁰⁾

근세 복식에 이어서 16C경 스카프는 역사가 오래된 소품으로 네타이의 조상으로 추정되는 크라바트(cravat)가 스카프의 시조로 알려져 있다.

크라바트는 루이 14세때인 1656년경 프랑스 파리지안(parisian)들이 군인 복장의 식에서 힌트를 얻어 유행시킨 것인데 셔츠칼라가 처음에는 뽕뽕하고 높은 것이었다가 점차 지금과 같은 모양으로 변화하였다. 모닝코트에 매는 에스코트 타이(Ascot Tie)처럼 첫 단추를 풀고 셔츠 안에 매는 것이 지금의 스카프가 된 것이다.

1840년대에는 롱스카프를 목에 두 번 두르고 험령하게 앞에 묶고 스카프 핀으로 고정시키는 형태가 나타났다.¹¹⁾ 1880년대 미국 무용수 두 명의 파리 입성은 스카프를 유행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이런 변화는 일상생활 및 여성 패션에 스며들었다.

1880년대와 1890년대 파리에서는 미국인 댄서인 Loie Fuller가 'Scarf Dances'로서 유명하였으며, Toulouse Lautrec은 그녀의 휘감는 듯한 동작을 보여주는 놀라운 초상화를 그렸다.

Isadora Duncan은 춤을 출 때, 몇 미터나 되는 "그리스 스타일"의 스카프를 그녀의 등뒤로 늘어뜨려 다리에 감기고 팔을 들어올려 극적 효과를 내는 것을 즐겼다. 나중에 Isadora Duncan은 명성을 얻었으며 Andrew Baseman에 의하면 그녀의 흐르는 듯한 그리스 풍의 스카프가 Ballet Russe에 의

해 스카프를 댄스에 통합하도록 영감을 주었다고 한다.¹²⁾

19C 초의 여자복식은 허리선이 높은 드레스로 넓이보다는 길이가 더 길어진 스카프가 쓰였으며, 깃털이나 동물의 털로 만들어진 스완스다운 팔라티움(Swansdown Palatime) 스카프로 우아하게 보이게 하는 장신구로 유행되었고 크기와 소재가 다양해지면서 여자복식에서 계속 이어졌다.

스카프가 본격적으로 출현한 것은 1906년에 들어서 파리의 미용사들은 파마 스타일을 만들어냈다. 짧고 단정한 머리 모양을 만들어 낸 커트, 단발 머리 및 파마 스타일에 대한 대대적인 유행은 스카프를 사용하게 만들었다.

일반 대중에게 보급된 것은 프랑스 혁명 이후부터이고 크리놀린¹³⁾ 시대에 캐시미어, 견, 레이스의 스카프가 유행되었다.

현재와 같은 스카프는 19C에 이르러 대량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주로 여성용의 액세서리로 넥라인(neckline)을 장식하거나 머리를 덮기도 하고 벨트 대신 허리에 사용하는 장식물로 애용되었다.¹⁴⁾

스카프 디자인이 독자적인 디자인 영역으로 발달하기 시작한 것은 19C에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¹⁵⁾의 공예 디자인 운동을 바탕으로 1920년대 장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액세서리가 발달하게 되면서부터이다.

1924년에 Sonia Delaunay는 짧은 기간동안 예술과 패션이 일치했던 때에 활동했던 파리의 미술가로 가장 아름다운 스카프를 만들어냈다.¹⁶⁾ 수놓아진 것, 애플리케이션이 달린 것, 손으로 그림 그려진 것 등의 스카프들은 1.8미터 길이에 45센티 폭으로 나타났다. Coco Chanel는 작은 종 모양의 모자와 스튜디오의 선풍기에 의해 날리는 커다란 검정 실크 스카프와 함께 크레이프 천으로 만들어진 드로우즈 위에 단추를 풀어헤친 채 입힌 그녀의 치마를 선보였다.

1930년대 초반 Charles James는 스카프를 재창조하여 리본이 달린 트럼프 모양의 스카프나, 주름지고 끝이 둥글거나, 원뿔 모양 혹은 삼각형을 주름진 모양의 스카프를 디자인했다. 1930년대에 Chanel, Patou, Fath 그리고 Worth와 같은 파리의

재단사들은 그들의 이름 아래 스카프를 소개했다. 이것은 요즘의 디자이너들이 자신들의 이름으로 가장 먼저 생산하는 품목이 되었다고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큰 정방형 실크 스카프가 유행하게 되었다. 군인들이 집에 보낸 선물로서 인기 있었던 이 스카프는 전쟁시 사기를 북돋아주는 기념적인 스카프는 물론 “디자이너 라벨이 부착된” 스카프를 포함하였다. 1919년에서 1939년 사이에는 여성 모드가 급격히 변화하였는데 이는 직업 전선에 뛰어들 여성과 여성운동의 사회변화에 의해 의복은 단순하고 간소화되면서 액세서리는 더욱 화려해지고 다양해져서 자연스럽게 스카프의 역할도 장식적인 역할로 더욱 뚜렷해졌다고 한다.¹⁷⁾

1935년에는 Hermes 작품의 첫 번째 스카프의 등장으로 현재의 스카프의 기본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유럽에서는 스카프 모자-밀짚모자에 실크 스카프가 대유행이었다. 하지만 1964년의 영국인 침공-Beatles, Mary Quant와 Twiggy 등을 선두로 젊은이들의 유행에 발 빠른 대처가 시작되었다.

스카프는 Vera Neumann, Peter Max, 그리고 Marchese Pucci Barsento(Emilio Pucci)에 의해 자체 혁명을 맞았다. 이 세 사람은 1960년대에 스카프를 보급시켰고, 짧고 찬란했던 한 순간, 그들

의 디자인은 동일한 네온 색채, 우울한 무지개 빛, 환각적인 무늬를 공유했다. 유행에 민감한 젊은 여성들은 머리, 또는 목에 Vera나 Pucci의 사각형 스카프를 단정히 두르고, 핸드백 손잡이에는 Hermes 스카프를 묶었다. 히피족들은 성을 불문하고 유행이 지난 옷을 입거나 Peter Max의 스카프를 목에 둘렀다.

1970년대에는, 1950년대 초반에 성공을 거둔 이탈리아의 신발 회사인 Ferragamo가 스카프 사업에 합류했고, 이 치열한 시장을 독점했다.

페라가모의 커다란 사각형 실크 스카프는 표범, 호랑이, 이국적인 열대수의 잎의 생생한 묘사를 촉진시켰다.

1988년 가을 컬렉션에서, 세계의 디자이너들은 예전과는 달리 스카프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일반적으로 현대의 가장 예지적인 디자이너로 생각되는 Comme des Garons의 Rei Kawakubo는, 그녀의 여자 모델들에게는 머리카락에 스카프를 두르고, 이에 상응하는 남자 모델들에게는 목에 묶었다. 이탈리아의 디자이너인 Giorgio Armani나 Gianni Versace 역시 스카프를 선보였다.¹⁸⁾

3) 스카프의 종류

스카프를 착용할 때는 몸의 어떤 부분에 걸치느냐에 따라 명칭이 다르다. 머리에 두를 때는 두건,

<표 1> 스카프의 종류

종류	스카프 명칭	특징
장방형의 스카프	맥시 스카프	길이가 극단적으로 긴 스카프를 말한다.
	머플러(Muffler)	스тол과 같이 목에 두르는 것으로 방한용으로 두겹게 된 것을 말한다.
	해킹(Hacking)	머플러의 일종으로 니트나 직물로 만들어진 180Cm정도의 긴 것을 말한다.
삼각형의 스카프	초커(Choker)	“목에 알맞게 감기는 장식”이라는 뜻으로 짧은 목도리 등을 가리킨다.
	세일러 스카프	세일러 칼라 아래로 둘러 묶는 삼각형의 천으로 칼라 모양처럼 만든다.
	힙 랩 스카프	커다란 스카프로 힙을 감는 것으로 최근 그 사용 방법이 늘어나고 있다.
	도파티(Dopatti)	인도 북서부 편잡 지방의 힌두교나 이슬람교도의 얇은 스카프를 말한다.
정방형의 스카프	스페인 슈	스페인 특유의 목도리를 말한다. 네 귀에 수를 단 사각형인데 삼각형으로 접어 착용한다.
	네커치프	무늬가 없거나 정방형의 무늬가 있는 수건으로 장식적인 목도리로 쓰인다.
	숄(Shawl)	천이나 모사 제품으로 된 어깨 덮개를 말한다. 정방형, 삼각형, 장방형 등이 있다.
	케이프 스톨	케이프형으로 어깨를 덮고 가슴에서 맨다.
	만틸라(Mantilla)	스페인 여성이 차림하는 독특하고 큰 스카프를 말한다.
	샬 제양	디오르사의 1977년 춘하 컬렉션의 대표적인 액세서리로 커다란 숄을 말한다.
	스위프(Sweep)	뉴욕의 디자이너 미야 가우디 여사의 발상에 의한 어깨에 걸치는 머플러의 명칭이다.
	헝커치프	손뉘기용 또는 장식용의 정방형 천을 말한다. 현재는 거의 실용품으로 사용되고 있다.

베일, 터번, 커치프(프랑스 고어인 머리수건이라는 의미의 courver-chef에서 유래되었음) 등으로 불리우며, 목이나 가슴에 두를 때는 네커치프, 크라바트, 머플러 등으로 불리우고, 가슴을 가로질러 두를 때는 장식띠, 멜빵 등으로 불리우며 어깨에 두를 때는 스톨(성찬복), 숄 등으로 불리운다고 한다. 그리고 허리에 두를 때는 장식 허리띠로 불리운다. 손에 휴대할 때는 작은 스카프는 손수건으로 불리울 수도 있다. 이러한 착용 형식은 기호와 계절에 따라 다르며 또한 연령, 계급, 성별 등에 따라 다르다고 한다.¹⁹⁾

<표-1>은 스카프의 종류를 명칭과 특징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2. 스카프 연출법의 유형

스카프는 형태에 따라 일반적으로 접는 방법이 약간씩 차이가 있으며 같은 형태의 스카프라도 매는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고 머리카락, 목, 어깨, 허리, 가슴 등에 장식을 하며, 신체부위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장식하여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²⁰⁾ 다음은 머리 장식, 목둘레 장식, 어깨 장식, 허리 장식, 가슴장식 등 스카프 연출법 중 5가지 유형들이다.

1) 머리 장식

머리 장식 연출법은 스카프로 머리를 감싸 턱 밑에서 리본으로 묶거나 또는 목을 감아 뒤로 넘긴다. 전자의 경우는 매우 장식적이면서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데 목둘레에 장식이 있는 의상에는 쓰지 않는 것이 좋고, 후자의 경우에는 유행을 타지 않는 스타일로, 특히 남성 스타일의 트렌치 코트나 부드러운 캐시미어 스웨터와 잘 어울리는 연출법이다.

<그림 1>은 스카프 연출법 중 할로 프롤라인(Hallo Frollein)으로 양쪽의 둥근 끈을 반대로 잡아당기고 주름을 잡아 볼록하게 만들어 표현한다. 이 연출법은 머리를 묶어 줄뿐만 아니라 단순한 헤어스타일에 적당한 매력을 줄 수 있다. <그림 2>는 연출법 명칭 중 아반테(Avante)이며 터번 형태

의 장식용 머리 싸개이다. 그러나 스카프의 질에 따라 바람보호용이나 햇빛차단용으로 실용적으로도 쓰일 수 있다.



<그림 1> 할로프롤라인
(출처:SCARVES.93)

<그림 2> 아반테
(출처:SCARVES.93)

2) 목둘레 장식

목에 스카프를 두르려면 특별한 매듭짓기가 필요하다. 이 매듭은 풀어지지 않아야 하며 지루함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는 사각의 스카프를 삼각형으로 접어 앞에서 뒤로 돌려 묶는 스타일로 너무 두꺼운 천은 삼가고 부드러운 면 소재가 가장 적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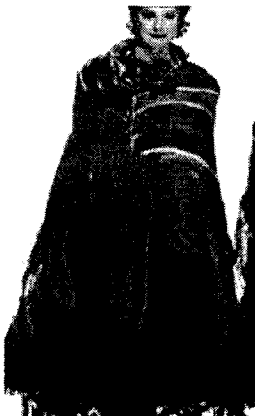
<그림 3> 메시지 전달자
(출처:SCARVES.93)

<그림 4> 비아리츠
(출처:SCARVES.93)

<그림 3>은 메시지 전달자(Botschafterin) 연출법으로 매기도 쉽고 연출효과도 커 기본적인 연출 방법 중하나이다. 매는법으로는 정사각형 스카프를 삼각형이 되도록 접어 목 주위에 놓아 주름잡힌 면이 턱 아래 놓이게 하여 표현한다. 스카프 양끝을 목덜미부분에서 교차시켜 다시 앞으로 당겨 양끝을 안으로 매듭지어 묶어 연출한다. <그림 4>는 비아리츠(Biarritz) 연출법으로 이 방법은 또 다른 매력적인 스카프 응용방법의 하나이며 모든 종류의 자켓을 보완하는 이상적인 방법이다. 매는법으로는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스카프를 가슴 위에 편편하게 놓고 위쪽 끝을 목덜미부분에서 잡아매어 연출한다. 스카프의 밑면을 바깥쪽을 접어 양끝을 등뒤에서 잡아매고, 허리부분에 주름을 잘 정리하도록 한다.

3) 어깨 장식

스카프를 느슨하게 어깨 위에 걸치는 것은 단지 장식이며, 개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²¹⁾ 어깨 장식 연출법은 조끼 안에 드레이프지게 보이게 하여 블라우스를 입은 것 같은 효과를 내기도 하고 솔처럼 겹에서 어깨 전체를 감싸 앞에서 묶거나 벨트 안으로 넣어 정리하는 방법도 있다.



<그림 5> GIORGIO ARMANI
(출처:COLLEZION 1993/ 94 A/W)



<그림 6> 멕시코
(출처:SCARVES,93)

<그림 5>는 한 장의 스카프를 느슨하게 어깨

위에 걸치고 어깨부분을 감싸 전체적인 분위기가 의상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6>은 멕시코 연출법으로 긴 스카프가 펼쳐거리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묶어 떨어뜨려 표현한다. 이 방법은 실용적일 뿐 아니라 아주 세련되어 보일 수 있다. 또한 매듭을 짓지 않고도 가능한 연출법이다.

4) 허리 장식

허리 장식 연출법은 띠 형식으로 하여 진 바지에 벨트 대신 사용하거나 또는 슬림한 원피스에 스카프로 힙을 감싸듯 하여 주름을 잡아 묶어 주면 날씬한 허리도 강조될 수 있는 방법이다.²²⁾



<그림 7>

(출처:인터넷,조원스카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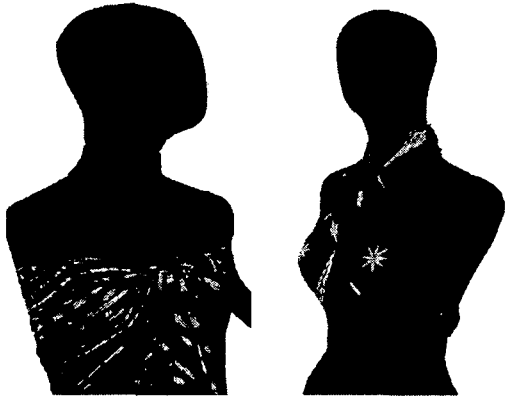
<그림 8> 안탈야

(출처:SCARVES,93)

<그림 7>은 스카프를 허리에 랩스커트로 둘러 치마의 형태를 연출하였고 자연스러운 주름으로 더욱 하의부분이 강조되었다. <그림 8>은 연출법 명칭이 안탈야(Antalya)라 부르며 천을 휘감아 만든 치마는 비키니와 함께 입고 외출할 수 있는 멋진 의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스카프는 단지 매듭 하나로 고정시킬 수 있다.

5) 가슴 장식

가슴장식방법에서는 어려운 재단이나 오래 걸리는 바느질이 필요하지 않는다. 단지 스카프를 올바르게 둘러 감고 올바른 위치에서 숨서 있게 묶은 매듭 한 개면 연출 할 수 있다.²³⁾



<그림 9> 알가베
(출처:SCARVES,93)

<그림 10> 캉가세이로
(출처:SCARVES,93)

<그림 9>는 연출법 중 알가베(Algarve)로 앞부분의 모습을 강조한 스타일이다. 이 방법은 스카프를 접어 삼각형을 만들어 접힌 면을 등에 두른 후 각이 진 양끝을 앞으로 가져와서 가슴 위에서 묶어 연출할 수 있다. <그림 10>은 연출법 명칭이 캉가세이로이며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실크를 많이 사용한다. 매는 방법으로는 스카프의 중간을 목덜미 부분에 엮고, 스카프 양쪽 끝 가슴부분에서 느슨하게 교차시켜 양끝을 등쪽으로 가게 한 뒤 연출할 수 있다. <표 2>로 스카프 연출법을 종류, 연출법 명칭, 특징, 형태를 분석해 보았다.

3. 스카프의 조형미를 도입한 현대 패션디자인

현대에 와서는 우리나라의 패션 산업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면서 의복에 어울리는 패션 액세서리의 활용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특히 여성의 부드럽고 세련된 연출에 더 없이 어울리는 스카프는 그 활용범위가 늘어나 연출 방법이 매우 다양해졌으며 최근에는 계절에 상관없이 개성연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스카프의 자연스런 드레이프성과 가장자리 원에 의해 형성되는 형태적 조형미를 현대 패션디자인에서 찾아볼 수 있다. 목에 두르기도 하고 머리에 감싸기도 하고 어깨에 걸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스카프의 조형미를 개성 있는 디자이너들이 자유로

이 연출할 수 있는 창의성과 독특한 스타일이 의상과 접목되어 디테일과 실루엣에 도입되고 있다. 다양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소재에 있어서도 같은 소재를 이용하여 현대적 감각에 맞게 스카프의 조형성을 강조하였다.



<그림 11> CHRISTIAN LACROIX
(출처:COLLEZIONI 1989/90 A/W)



<그림 12> PETER SOM
(출처:FASHION NEWS 2001/02 A/W)

<그림 11>은 스카프를 머리에서 아래쪽으로 살짝 끌어내려 목둘레에 떨어지게 하여 부드러운 스카프를 그대로 표현하였다. <그림 12>는 한 장의 스카프를 어깨에서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디자인하였다. <그림 13>은 몸판과 스카프가 같이 재단되어 목둘레가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하였다. <그림 14>는 아카폴코를 응용한 스카프 연출법으로 눈에 띄는 스카프를 확실하게 어깨에 걸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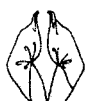

<그림 13> ERREUNO
(출처:COLLECTION 2000 S/S)



<그림 14> RENATO BALESTRA
(출처:COLLEZION 1989/90 A/W)

<표 2> 스카프 연출법

종류	연출법 명칭	특징	형태
어깨 장식	카르멘	어깨에 걸치는 스카프를 매는 모든 방법의 전형이다.	
허리 장식	디제바	스카프를 간단하게 걸치는 방법이며, 눈에 띄는 효과를 연출할 수 있다.	
	부다 페스트	스카프의 중간에 느슨하게 매듭을 짓고 리본으로 연출한다.	
	강가 세이로	실크를 많이 사용하여 화려하고 우아하게 휘감을 수 있다.	
	디지 보우티	스카프 두 개를 겹쳐 삼각형으로 만들고 허리 양 끝을 묶어 강조한다.	
	플라야 드아로	우아하고 상의 부분의 몸매를 강조하는 연출법이다.	
가슴 장식	통가	실크나 가벼운 면으로 휘감아진 뷔스티에(Bustier)	
	해변의 파티	스카프를 자연스럽게 매고 서도 아름답게 연출된다.	
	알가베	스카프를 삼각형으로 접어 가슴위에 묶어 연출한다.	
	돌체 비타	스카프의 정 가운데를 잡아 묶어 연출한다.	

종류	연출법 명칭	특징	형태
머리 장식	가을 피크닉	스카프를 앞쪽 이마에 얹어 새끼 꼬기로 돌려 말아 매듭짓는 연출법이다.	
	티타임	새끼꼬듯이 묶어 머리둘레를 감싸 목둘미에 밀착시킨 연출법이다.	
	투니어	주름진 면의 양끝을 잡아 당겨 매듭지어 자연스러운 주름을 표현한다.	
	아르 테코	스카프의 질감이 부드럽고 얇을수록 더 잘 매어진다.	
목둘레 장식	지브라 모니카	스카프를 아코디언처럼 접어 목주위에 얹고 연출한다.	
어깨 장식	비더 마이어	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방법이고 남성들에게도 어울릴 수 있다.	
	여름 장미	부드러운 소재로 된 스카프를 감아 연출한다.	
	넥타이 오버폴	스카프를 셔츠식 블라우스를 넥타이로 치장할 수도 있다.	
어깨 장식	프리 마돈나	자켓처럼 매듭진 스카프를 어깨 위에 걸쳐 연출한다.	
	아카 풀코	이 방법은 매듭한 개로 스카프가 고정되고 흘러내리지 않게 한다.	



<그림 15> MILA SCHON
(출처:COLLEZION
1993/94A/W)



<그림 16> CHRISTIAN
LACROIX
(출처:COLLECTION
2001 S/S)

<그림 15>는 프리마돈나를 응용한 연출법 중 하나로 사람들의 눈길을 끌 수 있는 스타일이다. <그림 16>은 목에 스카프를 두르려면 매듭짓기가 필요한데 이 연출법은 자연스러운 효과를 나타냈다.

III. 작품 제작

1. 작품 제작의도 및 방법

본 연구는 스카프에 있어서 리드미컬하게 주름지는 직물의 드레이프성과 매고 감싸는 연출법에 의한 다양한 직물형태의 조형성을 복식의 디테일 및 실루엣에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미의식을 지닌 현대인의 감성에 적합한 복식디자인을 창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계자수 기법을 이용하여 기존의 평면적인 직물에서 벗어나 실에 의한 입체적 질감을 부가하여 표현함으로써 풍부한 질감의 장식효과와 독특함을 추구하였다.

작품의 모티브는 멕시코, 산토리니, 캄가세이로, 시암, 디지보우티, 플로리다 등 다양한 스카프 연출법에 의한 형태를 선택하였다.

작품의 색채는 현대적인 단순미를 강조하고자 블랙, 화이트, 베이지, 다크 바이올렛, 카키 등 모던한 이미지의 색채를 선택하였으며 각 작품마다 모

노튼의 색채를 사용하여 질감의 대비 효과를 극대화시키고자 하였다.

작품의 소재는 흔히 사용하는 스카프의 소재인 견을 사용하지 않고 울크레이프, 캐시미어, 실크쉬폰, 수직실크, 스파크 기모 등과 같은 다양한 바탕 직물에 기계자수기법으로 양모사, 날개사, 솔잎사, 양모염색사, 등 예술적인 아트 패브릭을 개발하여 사용하였으며 바탕 직물에 질감대비로 작품의 디테일 및 실루엣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작품 실루엣에 있어서 스카프의 형태미를 강조하기 위해 자유로운 스카프 연출법을 활용한 코트는 H라인 실루엣, 원피스 드레스는 드레이프성을 이용한 롱&슬림 실루엣과 A라인 실루엣으로 디자인하였고 원피스는 보트네크라인의 원피스와 슬림 실루엣으로 모던하고 엘레강스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작품제작 방법은 스카프 연출에 의한 형태를 디자인하고 입체재단에 의해 그 형태적 특성을 파악한 후 이를 모티브로 하여 스카프의 드레이프성을 강조한 디자인으로 작품을 제작하였다.

작품의 구성은 총 4점이며 코트 1점, 원피스 드레스 2점, 원피스 정장 1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재의 풍부한 질감표현을 강조하기 위하여 스카프와 의상이 조화 될 수 있도록 대중성과 현대적인 감각을 바탕으로 실용적이고 간결한 실루엣으로 디자인하였다.

본 연구의 작품제작을 계획함에 있어서 각각의 작품을 모티브, 구성, 소재, 색채, 기법 및 실루엣 등으로 나누어 <표 3>으로 정리하여 작품의 특징을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표 3>작 품 제 작 계 획 표

작품	연출법	모티브	구 성	소 재	색 채	기법	실루엣	특 징
작품 I	멕시코		COAT	울크레이프 수직실크 양모사	BLACK	기계 자수		H라인 실루엣에 입체감을 살리고 자 실을 사용하여 양면 직물이 다 르도록 조형성을 살렸다.
작품 II	산토 리브		ONE PIECE DRESS	실크쉬폰 수직실크 날개사	BLACK	기계 자수		모티브가 가지는 특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바이어스 입체재단 으로 스카프의 직물의 드레이프 성과 원피스와의 조화를 이루도 록 하였다.
작품 III	강가 세이로		ONE PIECE	캐시미어 양모염색사	DARK PURPLE	기계 자수		프린세스라인 실루엣을 기본으로 스커트 아랫부분은 비대칭적으로 변화를 주었고 스카프가 칼라처 럼 변형되어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었다.
작품 IV	플로 리다		ONE PIECE DRESS	캐시미어 공단실크 양모사	KAHAKI	기계 자수		A라인 실루엣에 모노톤의 색채를 사용하여 질감의 대비 효과를 극 대화시키고자 하였다.

2. 작품 및 해설

(작품 I)

어깨를 가득 덮는 칼라가 있는 롱코트는 스카프와 연결되어 여러 가지로 연출할 수 있다. 칼라와 연결된 스카프는 안과 겉에 모두 기계자수를 하였고 겉에는 수직실크로 광택이 나는 직물로 안에는 울크레이프로 무광택인 직물을 사용하여 고급스러움을 추구하였다. 양면직물이 다르도록 하여 실의 느낌을 더욱 강조하였다. 앞에 보여지는 스트라이프 무늬는 입체감을 살리고자 양모사를 선으로 상반되는 선의 대조로 조형성을 살려주었다. 색상도 같은 BLACK를 사용하여 클래식한 분위기와 소재의 질감을 부각시켰다. 코트 앞여밈의 폭은 각각의 자락이 서로 겹치도록 풍성하게 하였지만 H라인 실루엣을 갖고 있다.



<그림 17> 작품 I의 전면사진



<그림 18> 작품 I'의 전면사진

(작품 II)

모티브가 가지는 특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바 이어스 입체재단으로 스카프 직물의 드레이프성과 원피스와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원피스는 기계자수기법을 이용하여 날개사를 전체적으로 부착시켜 불투명소재와 투명소재의 대비를 줌으로서 질감의 조화를 표현하였다. 원피스 패턴을 스카프



<그림 19> 작품 II의 전면사진

의 비대칭 여밈선과 조화를 이루도록 사선을 이용하여 주름지는 직물의 드레이프성을 강조하였다. 전체적인 실루엣은 여성스러운미를 강조하기 위한 slim&long line의 원피스 드레스로 우아한미를 나타내었으며 가슴부분에는 실크쉬폰으로 인한 비치는 효과로 소재에서 오는 단조로움을 없애고 스카프와 조화가 되도록 하였다. 소재는 광택이 나는 수직실크와 부드럽고 비치는 실크쉬폰을 사용하였으며 색상은 BLACK으로 여성스러움의 곡선미를 강조하였다.

(작품 III)

강가세이로 모티브는 실크로 많이 연출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바탕직물로 울크레이프를 사용하여 우아하게 휘감을 수 있게 제작하였다. 앞부분만 아니라 뒷모습도 매력적으로 강조하였다. 실루엣은 프린세스라인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스커트 아랫부분은 비대칭적으로 변화를 주었고 스카프가 칼라처럼 변형되어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었다. 색상은 DARK PURPLE로 같은 계열의 색상을 사용해 동질감을 느끼게 하였으며 염색한 양모사에서 오는 볼륨감이 표면의 재질감을 한층 더 부각시켰다.



<그림 20> 작품 III의 전면사진



<그림 21> 작품III'의 전면사진



<그림 23> 작품IV'의 전면사진

(작품IV)

스카프 연출법 중 플로리다는 저녁모임이나 해변가를 산책할 때 아주 두드러지는 연출이다. 이 비키니 상의는 사람들에게 집중시키는 뒷모습을 보여준다. 정장 상의나 자켓과 함께 입으면 업무용으로도 입을 수 있는 우아한 블라우스가 되기도 한다. 작품제작은 A라인 실루엣에 플로리다 연출법

을 접목시켜 여성스러움을 강조하였다. 색채에 있어서도 모던한 이미지를 선택하였으며 모노톤의 색채를 사용하여 질감의 대비효과를 극대화시키고자 하였다. 작품의 소재는 캐시미어와 공단실크를 사용하였고 평면적인 직물 위에 실에 의한 입체적 질감을 부가하여 표현함으로써 독특함을 추구하였다.



<그림 22> 작품IV의 전면사진

IV.결 론

본 연구는 스카프에 있어서 방한을 목적으로 한 실용성과 연출법에 의한 장식적인 조형미를 부각시켜 의상 디자인에 응용하고 기계자수기법을 사용한 아트패브릭을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미의식을 지닌 현대인의 감성을 적합한 복식디자인을 창출하고자 하였다.

스카프의 조형미를 응용하여 복식의 디테일 및 실루엣으로 디자인한 코트, 원피스 정장, 원피스 드레스 등으로 총 4작품을 제작하였으며 작품소재는 울크레이프, 캐시미어, 실크쉬폰, 수직실크 등의 바탕직물 위에 고급스러운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양모사, 날개사, 솔잎사, 양모염색사 등을 이용하여 기계자수기법으로 아트패브릭을 개발하여 사

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카프는 소재와 문양에 의한 화려한 장식성과 의상과의 코디네이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실용성을 함께 겸비하고 있으며, 착용자의 개성에 따라 목에 감거나 어깨에 걸치기도 하고 머리에 쓰는 등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가변적인 새로운 조형미를 표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조형미를 작품에 도입함으로써 의상의 디테일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 변화를 연출할 수 있었다.

둘째, 스카프 연출법에 의한 독특한 형태미를 응용함에 있어서 바이어스 재단에 의한 자연스러운 드레이핑을 이용함으로써 풍성한 주름구성과 비대칭적인 구조를 복식의 디테일과 실루엣으로 디자인할 수 있었으며 보다 현대적이며 엘레강스한 패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었다.

셋째, 소재에 있어서는 울크레이프, 캐시미어, 실크쉬폰, 수직실크 등과 같은 평면적인 바탕직물에 다양한 실의 풍부한 질감을 부가하여 고부가가치의 예술적인 아트패브릭을 개발할 수 있었으며, 바탕직물과 아트패브릭에 조화로운 질감의 대비효과는 복식 디자인의 형태미를 강조할 수 있게 하였다.

넷째, 기계자수에 의한 표현기법은 모사, 날개사, 솔잎사, 양모염색사등 굵기, 길이 및 꼬임이 다양한 펜시안(Fancy Yarn)을 직물 위에 부착시키기에 적합한 기법이었으며, 핸드머신 스티치에 의한 직물 표면의 요철효과는 풍부한 질감 표현을 가능케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스카프의 조형미를 응용한 복식의 형태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기계자수기법을 이용하여 바탕직물과의 다양한 질감대비효과를 표현하였다.

앞으로 풍부한 질감 표현에 있어서 기계자수기법 이외에 더 많은 기법들을 사용하고 인체부위에 따른 스카프 연출법에 의한 독특한 형태들을 다양하게 도입함으로써 스카프의 조형미를 보다 두드러지게 표현할 수 있는 영역으로의 확대가 이루어져 더욱 다양한 현대 복식디자인 개발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참고문헌

- 1) Charlotte Mankey Calasbetta, Ph.D, 'Fairchild's Dictionary of Fashion', Fairchild books, New York, 1998, p.480.
- 2) Lois Martin, "THE SCARF", Surface Design Journal, Halsey, Summer, 1994, p.14.
- 3) Charlotte Mankey Calasbetta, 전게서, p.480.
- 4) Lois Martin, 전게서, p.14.
- 5) Francois Boucher, '20,000 YEARS OF FASHION', New York, Harry N. Abrams, Inc, 1987, p.28.
- 6) 'THE BOOKS OF COSTUME BY MILLIA DAVENPORT', New York, Crown Publishers, Inc, 1976, p.4.
- 7) Lois Martin, 전게서, pp.38~39.
- 8) Francois Boucher, 전게서, p.43.
- 9) 이정옥, 최영옥, 최경주, 「서양복식사」, 형설출판사, 1987, p.99.
- 10) Francois Boucher, 상게서, p.20.
- 11) R.Turner Wilcox, 'THE MODE IN COSTUME',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8, p.296.
- 12) Lois Martin, 전게서, p.37.
- 13) 크리놀린(Crioline): 193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유행했던 고래뼈로 만든 버팀 살을 넣은 스커트로 허리가 잘록하게 꼭끼고 극단적으로 퍼진 스타일.
- 14) Francois Boucher, 전게서, p.351.
- 15) 윌리엄 모리스(1834~1896): 19C근대 디자인에서 선구자적인 인물, 산업혁명에 의해 분극화 되었던 예술과 기술의 결합을 이룸으로써 20C 영국과 대륙의 디자인에 영향을 주었다.
- 16) Andrew Baseman, 'The Scarf', New York, Tabori & Chang, 1989, p.12.
- 17) 이정옥, 「서양복식사」, (서울: 학문사, 1978), p.255.
- 18) Andrew Baseman, 전게서, pp.17~18.
- 19) Lois Martin, 상게서, p.15.
- 20) 김영신, 「토탈 패션 코디네이션」, 형설출판사, 2001, p.117.
- 21) 양리나, 「패션스카프연출」, 대왕사, 2001, p.94.
- 22) 송주은, "창살문양에 의한 스카프 디자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1997, p178.
- 23) 양리나, 전게서, p.109.